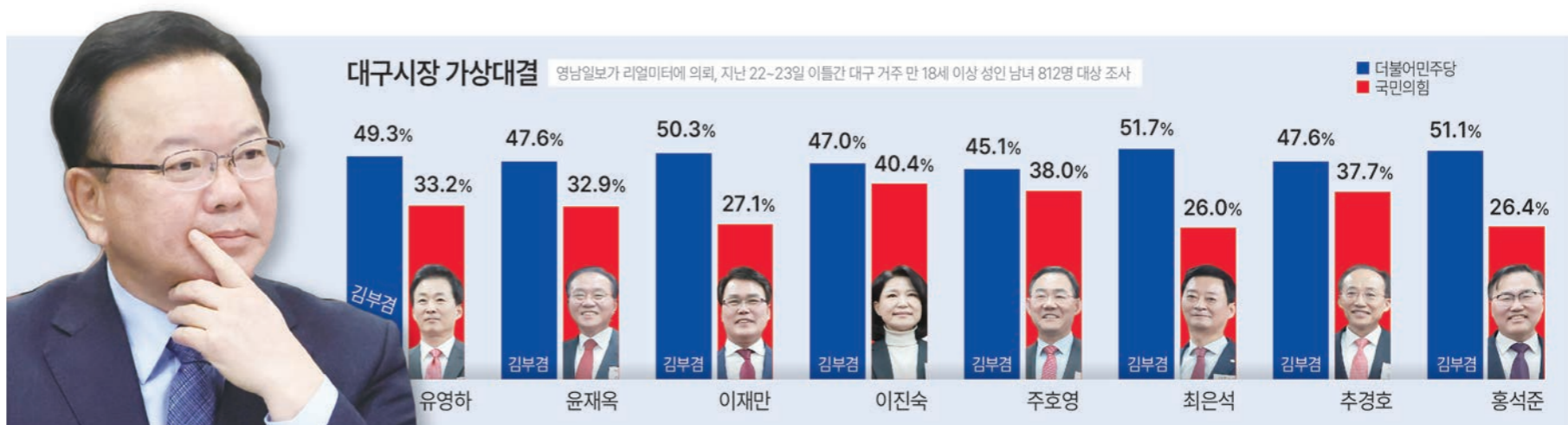


“김부겸 나오면 이길 후보 없다”... 국힘, 대구 수성 위태

이진숙 6.6·추경호 10·주호영에 7% 차... 지지율 압도
텃밭 내줄 판인데도 컷오프 반발 가처분 신청 내분
李 공관위원장 “혁신공천 한 치 후퇴 없다” 배수진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컷오프’에 반발하고 있는 주 의원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은 무효가 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앞서 주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컷오프됐을 때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당선됐다.

반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SNS에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며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은 그대로 두고, 기득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컷오프 결정은 무효가 돼 6명의 후보가 치르는 예비경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곳은 신속하게 단수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경선,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은 새로 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됐지만 그

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영남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간 1대1 가상대결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주 의장과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 1대1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김 전 총리는 주 의원과 대결에서

45.1% 대 38.0%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와의 대결에선 47.6% 대 37.7%로, 9.9%p 격차를 보였다.

유영하 의원의 대결에선 49.3% 대 33.2%로 16.1%p 앞섰고, 윤재욱 의원의 대결에서도 47.6%를 얻어 14.7%p 격차로 앞섰다.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선 50.3% 대 26.0%, 최은석 의원의 대결에선 51.7% 대 26.4%로, 과반 지지를 보였다.

다만, 이진숙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선 47.0%를 얻어 40.4%를 얻은 이 전 위원장과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정청래 “살기 좋은 고장 만들겠다”... ‘충북탈환’ 지원 행보

충주에서 최고위... 지역 발전 카드로 민심 공략
국힘 겨냥 “민주당엔 억울한 컷오프 없어” 비아냥



6·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충북지역을 찾아 “대한민국의 허리 충북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어디든 빠르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바꿔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충북은 지리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지방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이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차 전지와 바이오산업, 초음속 중부내륙교통망을 기반으로 중부권 산업과 물류의 명실상부한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용역비를 반영했다”며 “이로써 AI 기반 항체 의약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하고 용역비가 마련됐다”며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육천 농촌 기계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으로 충북도민의 삶의 질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주는 물이 많은 곳이다.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과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준비됐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물이 많은 충주는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이 될 것”이라며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충주댐 수력 기반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준비됐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잠시 멈춰섰지만,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남을 넘어 충북까지 아우르는 광역적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며 “충북이 발전해야 사통팔달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낙하산 공천이 없다”며 “중앙당 앞에서 보통 선거철이면 벌어지는 사갈, 단식, 항의농성 이런 것이 거의 없

다”고 말했다.

또한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 그리고 부적격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충북은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을 잇는 지리적 중심축이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균형성장의 거점”이라며 “민주당은 충북의 경제성장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충북도는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민주당은 충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
맹세희 지음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